어르신 전도 · 교육 힘써
명광, 경로대학 개강

전주지방 명광교회(박원종 목사)는 지난 3월 13일 명광경로대학 개강식을 갖고 지역 어르신 복음화와 평생교육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전북 임실군 운암면과 신덕면 지역 60여명의 어르신들이 입학했으며, 오는 12월 둘째 주까지 2학기에 걸쳐 학사가 운영된다.

이날 개강식은 박원종 목사의 사회, 관촌지역 교회연합회 회장 김윤배 목사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박원종 목사는 "경로대학이 지역사회 어르신 복음화와 재교육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120명의 교인들이 낸 후원금 2000여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00평에 이르는 종합복지관 건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백상현

성전 재건 … 새도약 발판 마련

길벗교회, 성전입당 및 임직식

길벗교회가 입당 및 임직식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날아오르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대전중앙지방 길벗교회(정한교 목사, 구 대일교회)는 지난 3월 11일 새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권사취임과 집사안수식을 가졌다.

길벗교회는 지난 1992년 대전중앙지방회에서 선교대회에서 모은 헌금으로 설립한 교회로 이날 새성전 입당식은 교회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방회 관계자들도 감격을 함께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한교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이영준 장로의 기도, 지방회장 이병기 목사의 설교에 이어 건축위원장 임선종 집사의 경과보고, 입당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임직식, 축하의 순서, 박영섭 원로목사(선화교회)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임직식에서는 최운성 문희남 씨가 권사로 취임했으며, 임선종 이충희 신현태 문형구 오현섭 씨 등 5명이 안수집사로 임직받았다.

이날 정한교 목사는 "교회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지방회 목회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길벗교회는 지난 2004년 가건물이었던 교회건물이 폭설에 무너져 다시 건축했으나 교회부지가 대전 서남부 개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또 교회를 이전해 재도약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지난해 건축에 착공,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이날 입당식을 거행했다.

예배당은 대지 99평에 연면적 285평으로 예배당이 들어선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축되었다. 특히 1층은 주차장으로 꾸며 편리성을 높였으며, 옥상은 하늘정원으로 성도들의 쉼의 공간으로 사용토록 했다.

문혜성

"성장·발전하는 교회" 다짐

대신, 45주년 장로장립 등 임직식

대신교회가 교회창립 45주년을 기념해 새 일꿈을 세우고 교단창립 100주년에 발맞춰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서울강서지방 대신교회(박현모 목사)는 지난 3월 18일 장로장립, 권사취임, 안수집사 취임 등 임직예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직식은 박현모 목사의 집례로 지방회 부회장 최형진 장로의 기도, 지방회장 이병술 목사의 설교에 이어 예식이 거행되었으며, 이석종 목사(영광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이병술 목사는 '좋은교인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임직자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면서 "순종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범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신재식 김낙성 홍순만 씨가 신임장로로 장립되고 현용영 씨 등 15명이 권사로 취임했다. 최성부 김한상 씨는 안수집사로 취임했으며, 김영덕 씨 등 4명이 신임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다.

축사 및 격려사에서는 조남국 목사(광명중앙교회) 계성철 목사(개봉교회)목사, 류수영 목사(성은교회) 안창건 목사(천호동교회 원로)와 등이 참석해 교회와 임직자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 큰 꿈을 키우는 교회가 되길바란다"고 축하하고 격려했다. 문혜성

평신도 역할 사명 다져

영남지역 장로회 총회 및 세미나

영남지역장로회가 지난 3월 2일 경주콩코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펼쳐야할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50여명의 평신도들이 참석해 교단100주년을 맞아 영남의 낙후된 복음화율을 드높이고 'Again 1907 From 영남'이라는 비전을 선포, 신임회장에 양봉룡 장로(모암교회)를 선출하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에 개회예배는 박동국 장로의 사회로 전 회장 이동기 장로의 기도, 조관행 목사(창원교회)의 설교, 박윤식 목사(수정동교회)의 환영사가 진행됐으며 교단 100주년 위원장 권석원 목사, 전국장로회 회장 한상표 장로의 격려사와 축사에 이어 영남지역 전 총회장 윤태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총회장 이정익 목사가 '우리가 펼쳐야 할 비전'이라는 주제로 "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서는 인재를 발견하고 성장시켜야하며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목사는 "예성과의 통합을 위한 우리 교단의 마음가짐을 숙지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양봉룡 장로(모암)가 선출됐다. 부회장/ 성해표(예동) 전기용(마산 상남) 사공석(영도), 총무/ 최종현(울산), 서기/ 손영수(군위), 부서기/ 정상열(구미중앙), 회계/ 오순곤(부산백합), 부회계/ 김정식(신마산), 감사/ 강춘길(김해제일) 김상식(대광).

김광오

비전 실현하는 알찬교회 선언

청주운동, 75주년 입당 및 임직식

청주지방 청주운동교회(이인수 목사)는 지난 3월 18일 창립 75주년기념 교회입당 및 장로장립, 장로취임, 권사취임 등 임직식을 갖고 '비전을 실현하는 알찬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이인수 목사의 집례로 지방회 부회장 차윤철 장로의 기도, 지방회장 박도훈 목사의 설교, 최홍국 목사(청광교회 명예)의 축도로 진행됐다.

박도훈 목사는 이날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설계도대로 건축하는 지혜로운 설계자 같이 임직자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성전은 지상 5층 연건평 480평 건물로 대예배실, 세미나실, 기도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임직식에서는 최한기 김흥원 씨가 장로로 취임했으며, 신광철 김동민 씨가 신임 장로로 장립됐다. 이어진 권사취임식에서는 최경숙 씨 등 8명이 신임권사 직분을 받았다. 문혜성

"생명력 있는 교회로 도약"

금호, 주용택 목사 취임 · 조윤택 장로 원로추대

김성배 목사 원로 추대 이후 공석으로 비어있던 금호교회 담임목사에 주용택 목사가 취임했다.

서울중앙지방 금호교회는 지난 3월 18일 담임목사 취임 및 조윤택 장로의 원로 추대예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치리목사인 송전호 목사의 집례로 지방회 부회장 심탁일 장로의 기도, 지방회장 진종성 목사의 설교에 이어 담임목사 취임식과 원로장로 추대식이 이어졌다.

진종성 목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명철(서대문교회) 박경완(성진교회), 이원호 목사(춘천소양교회) 등이 축사와 권면으로 담임목사 취임과 원로장로 추대를 축하했다.

이날 담임목사로 취임한 주용택 목사는 서울신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금호교회와 제주제일교회, 아현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했으며, 원로장로로 추대된 조윤택 장로는 1984년 장로로 장립한 이후 교회의 중책을 맡아 교회와 지방회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주용택 목사는 이날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생명력 있는 사역자가 되겠으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교회,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재석

"새로운 목회 비전 이룰 터"

지구촌교회 고광배 목사 취임

고광배 목사가 인천 지구촌교회의 새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고광배 목사는 지난 3월 18일 담임취임예식을 갖고 지구촌교회의 발전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순천 한소망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던 고 목사는 이날 "새로운 목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 새 목장에 부임하게 되었다"면서 "주님의 모습을 흉내라도 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교단의 중견 목회자인 고 목사는 전남지방회장과 교역자회장,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취임예배는 치리목사 가종현 목사의 사회와 인천중앙지방회 부회장 김용선 장로의 기도, 지방회장 김사승 목사의 설교에 이어 담임목사 소개, 서약과 치리권 부여, 전 지방회장 김진웅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김사승 목사는 설교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부흥 발전하는 일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조만목사(서머나교회), 임석빈 목사(가나제일교회), 신재형 목사(인천교회), 정삼열 목사(문학중앙교회) 등이 담임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황승영

선교사 파송예배

담임목사 이원호

소양교회는 교단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큰 일에 앞장서기 위해 'Vision3333'을 표어로 삼고 한 해 동안 생명다해 전진하기로 하였습니다.

3000명 예배자, 300명 지도자, 30명 선교사, 3개 지교회를 하나님께 올리겠다는 커다란 비전이 그것입니다.

그 중 3번째 비전인 30명 선교사의 첫 열매로 김유훈 · 고미연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케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의 승리의 사역과 커다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유훈 · 고미연 선교사〉

• 일시 : 2007년 4월 1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 소양교회 본당

※ 인도 현지선교사(10명)
에벤에제르 창가마니, 스푸르겐 리잔, 크리쉬난라주, 무니스와란 가네산, 엘루말라이 다네일 발루, 키난 탐비 라비, 마탄라즈 라비 데이비드, 예수마니 샨무가벨, 인바라즈 카시, 플랭클린 라즈 선다르 라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양교회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114번지
전화 : 033)253-2004~5 팩스 : 033)244-3005

검은대륙 서부아프리카에 선교사 파송

1만원이면 1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 7일간을 살 수 있습니다.
1만원 후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배 목사

북아프리카는 이슬람이 100%, 서부아프리카는 50% 점령한 상황에 있으며 기독교는 겨우 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살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선교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선교회에서는 서아프리카에 **국제연합신학교**와 **선교센터, 교회를 건축(4백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1년에 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목회자들에게 **자전거(10만원)**를 기증하고 **추장 집(4백만원)**과 **야학교(4백만원)**를 건축하여 현지 목사들이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선교여행을 가서 전도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아프리카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교회에서는 **"1만원 후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 표 손병수 목사

선교구좌
국민 625101-01-191411 손병수 서아프리카선교회
농협 216017-51-097672 손병수 서아프리카선교회

서부아프리카선교회 이사장 김창배 목사
대 표 손병수 목사

파송지역 / 부르키나파소 보보 디알로스
2006년 9월에 부르키나파소 선교사로 파송한 제르베 목사 부부

파송지역 / 서아프리카 카메룬 두알라
2007년도 2월에 카메룬 선교사로 파송한 강창석 · 이미숙 목사

WAMA서아프리카선교회
West Africa Mission Association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9-13 전화 : 032)612-8040, 613-9790
이사장 : 김창배 목사(011-414-7644) 대표 : 손병수 목사(011-9191-0041)